

전남도 ‘확진자 41% 타지역 확진자 접촉’ 거리두기 격상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2단계로...사적모임 8인은 그대로 유지
유흥시설 자정까지만 영업...결혼·장례식장 100명 이상 금지

전남지역 사회적거리두기가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휴가철 외국인 유입 등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최근 2주 전남서 나온 신규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 타지역 확진자 접촉 과정에서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15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16일 새벽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24시까지 제한하고, 결혼식·장례식장 100명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1주일간 전남지역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1명으로 증가한 데다, 도내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소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또한 최근 2주간 나온 확진자 117명 가운데 타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확진된 도민이 49명으로 전체의 41%에 이른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전국적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9일째 1000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변이바이러스도 급속히 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2단계 거리두기 기간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24시로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포장만 가능하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파티룸, 마사지업소 등의 시설면적 당 가능 인원은 기존 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강화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고, 복욕장 수면실은 이용을 금지한다. 영화관·공연장은 동행자와 좌석을 한 칸씩 띄워야 한다. 백신 접종자에게 부여했던 인센티브도 주어지지 않는다.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해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8명으로 유지된다. 7월 초 총 4단계 체제로 바뀌어 시행에 들어간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에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인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남도는 7월 초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면서 사적모임 허용인원에 대해서 2주간의 유평기간을 두겠다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8인으로 제한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 음성 확인서 없으면 입국 불가

15일 오후 인천공항 검역구역에서 두바이 입국민들이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고 입국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부터 우리 국민도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입국을 할 수 없다. /연합뉴스

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관광객 유입이 많은 동부권 뿐만 아니라 도내 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급적 모임·외출 등 만남을 자제하고 백신 접종자라도 실내의 관계없이 마스크

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15일 오후 2시 현재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목포 1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1771명이 됐다. 지역감염은 1665명, 해외유입은 106명이다. 지난

14일에는 하루 동안 여수 8명, 광양 8명, 나주 4명, 완도 3명, 곡성 2명, 순천 1명 등 모두 2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바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의회도 여수 경도 레지던스 건립 비난

강정희 도의원 “건축경관위 재심의 바뀐게 없는데 승인 유감”

여수시의회가 경도 레지던스 관련 예산(연륙교 건설) 불승인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남도의회에서도 레지던스 건립을 비판하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전남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강정희의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은 “미래에셋그룹 측이 제출한 경도 레지던스 신축계획이 1차 재검토 의결 당시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는 ‘건축물 간 이격거리 20m 확보’ 정도를 추가하는 수준에서 조건부 의결을 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가 건축물의 규모와 높이 등을 개선하라고 했음에도 미래에셋 측이 이를 개선하지 않고 조건부 의결까지 이뤄진 데 대해 광양만경제청 또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미래에셋은 나서지 않고 사실상 미래에셋 대변인 노릇을 하는 광양만경제청이 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면서 “허가권을 가진 광양만경제청은 지역사회 여론과 경도지구 개발 취지 및 경관계획 등을 고려해 경도 레지던스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양만경제청 관계자는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취지 등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그룹 측은 경도 해양관광단지 부지 관문 격인 연륙교 진입부 6만5000㎡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타워형 레지던스 1184실(11개 동) 건립을 추진 중이다.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레지던스 사업을 미래에셋 측이 들고나온 데 이어, 광양경제청이 이를 승인해준 사실이 지난 4월 전남도 건축경관 심의를 앞두고 알려지면서 “관광단지 조성보다 부동산 사업에 혈안이 됐다”며 여수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대체공휴 확대, ‘쉬는 국경일’에만 적용

성탄절·석탄일 제외

정부는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쉬는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광복절(8월 15일 일요일), 개천절(10월 3일 일요일), 한글날(10월 9일 토요일) 직후의 월요일이 추가로 ‘빨간 날’이 된다. 당초 대체공휴일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성탄절은 제외됐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

일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됐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총 11일로 늘어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절차도 명확히 했다.

지난달 국회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됐으나,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인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

광주시, 해외 자매결연도시 온라인 청년문화교류

광주시 청년과 해외 자매결연도시 청년이 문화교류 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번 청년문화교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한국문화체험을 자매결연도시에 알리고, 랜선여행과 주제별 토론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는 일본 센다이시 등 12

개국 청년과 광주 청년 23명이, 이어 8월2일부터 6일까지는 인도네시아 메단시 청년과 광주 청년 24명이 문화교류를 한다.

광주 청년들은 한국문화체험으로 태권도, 아이돌 메이크업, 케이팝(K-POP) 댄스는 물론 5·18 민주화운동 알아보기, 한글기념품 만들기 등을 해외 청년들에게 소개하고, 한국과 광주의 문화를 이해·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걷고 싶은 가로숲길’에 광주시, 동구 금남로 확장

광주시가 온라인 시민 투표를 통해 ‘걷고 싶은 가로숲길’로 동구 금남로를 최종 확정했다.

‘걷고 싶은 가로숲길’은 도심 녹색 오아시스인 가로숲길을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시는 자치구별로 걷기 편하고 아름다운 가로숲길을 2곳씩 총 10곳을 추천받아 1차 심사로 지난 6월23일 도시사업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생태적 건강성, 사회·문화적 기능, 경관적 기능,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해 총 5곳(동구 금남로, 서구 내방로, 남구 오방로, 북구 천치인로, 광산구 공항로)으로 압축해 2차 심사를 진행했다.

2차 심사는 7월1일부터 14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최다 표를 획득한 동구 금남로를 확정했다. 금남로를 관리하는 동구에는 내년도 가로수 유지관리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동구 금남로 가로숲길은 전일빌딩과 금남로5가역으로 이어지는 1km 구간으로, 광주시 시목(市木)인 은행나무 가로수가 주된 가로경관을 이루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임야, 단독섬

삽니다. 010-6837-4700

**금매물과
경매물건에 투자**

하실 분. 010-3605-5000

장성토지(분양 매매)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토지평수
(150평, 200평, 500평, 1800평)

★ **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 ★

상가매매
(상무지구)

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3천(용 4억)

2) 월수익 300만, (보 4천)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 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 영화관 앞)

6층(60평) 매가4억5천(보2천 200), 용 2억6천

7층(40평) 매가 2억3천(보1천 100), 용 9천

010-8660-9801

010-6670-9800

나주 요양병원

「급 매 매」

토지면적 | 10,162㎡

건물면적 | 7,296㎡ (총 3동)

▶1동(2017년 준공) : 3,507㎡
- 지하 1층 ~ 지상 4층
- 베드 수 : 200베드

▶2동(2012년 준공) : 2,336㎡
- 지상 1층 ~ 지상 4층
- 현재 주간 요양 보호 30명
- 요양원 90명
- 추천용도 : 암 병동 또는 치매 병동

▶3동(2008년 준공) : 1,453㎡
- 지상 1층 ~ 지상 3층
- 현재 장례식장 운영 중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매매가격 | 118억원

상담문의 | 010-3605-8564 (임선희)
나주시 우정로 56
리치타워 A동 101호

전남공인중개사

산행안내

7월25일(일)
▲광주서산악회 7월25일(일) 강원도 동해, 삼척시8·40근린에 개방, 한국

의장가게, 두타산(청옥산)협곡마천루, 배틀릿지무릉계곡 산행, 염주체육관(05:00), 동아병원(05:05), 롯데백화점(05:10), 광주역(05:15), 문예후문(05:25), 비엔누자장(05:30) * 다음가페 광주서산악회 ☎ 010 7794 6920

69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북광주 525-3761 • 양 산 571-7658 • 용 봉 433-1503	• 문 흥 266-1960 • 신 안 222-8171 • 오 치 266-7601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부 225-6001 • 충 창 222-8171	• 동 명 222-9054 • 중 앙 222-9054
남 구	• 남 부 673-6836 • 봉 선 673-6836 • 신 월 671-7276	• 백 운 651-1833 • 송 하 675-6605
서 구	• 광 천 382-5788 • 서광주 369-1625 • 치 평 376-6511 • 화 정 369-1625	• 상 무 372-2352 • 윤 천 376-7153 • 풍 암 603-0311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침 단 973-2900 • 광 산 944-0444	• 월 곡 959-1920 • 하 남 955-0451